

더민주, 정청래 등 현역 5명 공천배제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 후보 압축

총선 공천 '가속도'

여야가 단수 후보자 및 경선 지역 발표에 잇달아 나서는 등 총선 공천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재선의 정청래(마포 을), 3선의 최규성(김제·부안), 조선의 윤후덕(파주 갑), 부좌현(안산 단원 을), 강동원(남원·임실·순창) 의원 등 5명을 공천 배제했다. 또 현역 단수 지역 23곳과 현역 경선 4곳, 원외 단수 12곳, 원외 경선 4곳 등 총 44개 지역에 대한 공천 방식을 확정했다.

더민주는 11일 추가로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교체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비대위에 올랐다가 오늘 발표에 빠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으며 김성수 대변인은 "(공천 배제와 관련) 3선은 발표가 안 된 부분이 많아 내일 또 할 것이며, 초재선 부분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컷오프 탈락자 및 불출마를 제외하고 초재선 68명 가운데 37명, 3선 이상은 24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5명의 공천탈락자가 추가됨에 따라 지금까지 교체 확정 의원은 현역평가 20% 컷오프 탈락자 10명과 불출마자

5명을 포함, 총 20명이 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산 을의 이용섭 전 의원이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며 나머지 지역구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 서구 갑의 경우, 박해자 의원과 송갑석 후보의 경선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동남 갑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영입 및 신진 인사 전략공천 여부가 관심사다.

전남은 1~2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배제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의 더민주 후보 경선에서 홍진태(전 광주시 문화정책실장) 예비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당 공관위도 이날 광주·전남 지역 경선 후보 압축 등에 나서고 있으며 11일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수 후보 결정 및 후보 압축 등을 놓고 일부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당 내외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서울과 경기, 경남, 제주 등 모두 31개 경선 대상 지역과 4곳의 단수 추천지역 선정 등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현역 의원 공천 배제는 없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친노·친문 정리 없이 호남민심 못 얻는다”

더민주 컷오프 “친노패권주의 핵심 빠졌다” 비난 여론 확산

광주·전남 공천 발표 연기... 김종인 대표 공언 헛구호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친노 패권정신을 공언한 가운데 압박한 호남지역 공천에서도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현역의원을 비롯한 인사들의 공천 배제가 이뤄지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더민주의 현역 의원 컷오프에 대해 “친노패권주의 핵심이 빠졌다”라는 비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부 친노계 인사의 컷오프가 있긴 했지만 이는 막말과 부적절한 처신 등에게

인한 것이지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의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비판의 요체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오히려 ‘교묘하게 친노패권주의를 강화·재생산하는 공천’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공천에서 탈락한 (더민주) 현역의원들 면면을 보면 지난 7일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가 발표한 친노패권 핵심인사는 한 명도 없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이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의 기득권 핵심을 이루는 친노, 486인사들 중에서 성골들은 그대로 살아 오고 일부 눈 밖에 난 인사들은 처낸 교묘한 짜깁기 명단”이라며 “현역 경선 지역의 경우 당의 뿌리와 관련된 인사들은 내몰렸고, 공천자들의 대다수가 친노 영향권 내에 있는 인사들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압박한 호남 공천에서 친노·친문 인사에 대한 컷오프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금씩 호전하고 있는 호남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낼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공천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공언했던 ‘친노패권주의 청산’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광주시당 관계자는 “현재 광주와 전남은 여전히 반문재인 정서가 강하고 민심은 강력히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 공천관리위와 비상대책위는 앞으로 있을 공천에서 이 같은 부분을 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도 “여전히 더민주에 특히 호남에 친노·친문 핵심세력 대부분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통합·연대 제의는 정치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광주시민은 더민주의 향후 호남공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꽃샘추위 속 배나무 가지 엮기

꽃샘 추위가 이틀째 지속한 10일 나주시 왕곡면 화정마을 한 배밭에서 농부들이 가지 엮기를 하고 있다. 이번 꽃샘 추위는 13일까지 이어진 뒤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섭다. 인공지능 ‘알파고’

이세돌 2국도 불계패

“한판이라도 이기도록 노력”

인간 대표로 나선 이세돌(사진)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에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세돌 9단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2국에서 알파고에 211수 끝에 백 불계패했다.

〈관련기사 2면〉

전날 알파고의 냉철함에 허를 찔린 이세돌 9단은 2국에서 전에 없던 신중함으로 무장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끝내 구글이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1200대의 엄청난 계산력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날 돌을 바꿔 흑으로 시작한 알파고는 초반 3수째 소목을 두는 등 변칙 수를 연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패배로 이세돌 9단은 총 5차례 열리는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승리 없이 2패를 떠안았다. 제3국은 하루 쉬고 12일 오후 1시 열린다.

연합뉴스

별교~주암 등 국도·국지도 8건 예타 통과

고흥우주센터 연결 마지막 구간 전남도, 500억 이상 사업 ‘탄력’

전남도가 추진중인 국도 18호선 별교~주암3 구간(총사업비 3535억원) 등 500억 원 이상 국도·국지도 사업 8건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13개 대상 사업(550억원 이상) 중 8건이 예타를 통과하고, 1건이 재검토 보류사업으로 분류

됐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 사업은 별교~주암3, 동면~주암, 동강~학교, 함평~해보, 동명~송광, 장흥~유치, 낙안~상사, 도계~장성 등 8건이다.

특히 국도 18호선 별교~주암3 구간은 전남권역 주요 간선도로로, 호남고속도로 주암 나들목을 통해 보성, 고흥 우주센터를 연결하는 마지막 미정비구간이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됐던 구간이지만, 계속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고흥~별교~주암(55km) 전체 구간이 연결돼 지역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전남

도는 기대하고 있다.

국도 22호선 화순 동면~순천 주암, 국도 15호선 화순 동면~순천 송광 등은 각각 총사업비가 681억원, 1126억원 등이다. 해당 구간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 급커브 등 선형불량 구간 정비 필요성이 인정됐다.

전남도는 재검토 보류사업으로 분류된 여수~남해 간(동서해저터널)도로 건설을

비롯한 탈락된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기재부 예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중 2016년 국회 확정 예산은 계속사업 40건(7397억원), 신규사업 10건(498억원)으로 모두 50건에 7895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안보다 1049억원이 증액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선 표밭 점검 - 광주 동남갑 ▶5면



초등학생 정당당당 정책선거 ▶6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www.hera.co.kr